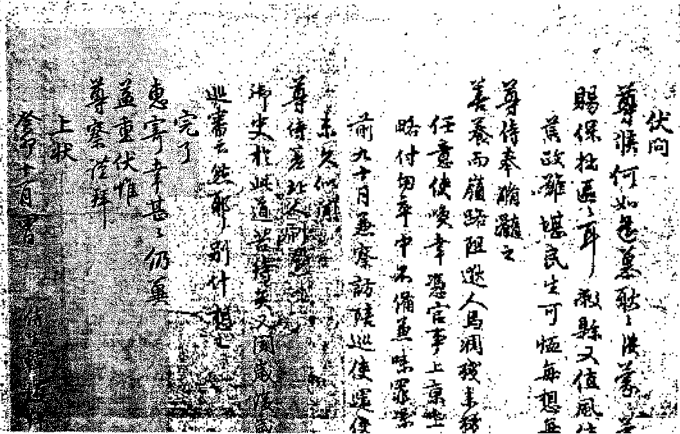


석봉 한호 간찰 (石峯 韓濩 簡札)



조선시대 명필 석봉 한호(韓濩, 1543~1605)가 1603년 강원도 흙곡현령(현재 강원도 통천)으로 있으면서 보낸 편지글로, 재해를 입은 백성들을 구제할 방도가 마땅하지 않음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.

한호의 본관은 삼화(三和)이고, 자는 경홍(景洪), 호는 석봉(石峯)·청사(淸沙)이다. 왕희지(王羲之)·안진경(顔眞卿)의 필법을 익혀 해(楷)·행(行)·초(草) 등 각 서체에 모두 뛰어났다. 한국 서예계에서 김정희(金正喜)와 쌍벽을 이룬다.

1603년(선조 36) / 가로 34.5cm × 22.8cm / 윤완식 기탁

전문 삼가 어르신의 건강은 어떠하신지요. 멀리서 그리움을 쫓내 잊지 못하여 마음이 괴롭습니다. 저는 임금의 은혜를 입어 못한 자신을 지키고 있으니 구차할 뿐입니다.

제가 다스리는 고을이 또 풍재(風災)를 당하였는데, 백성을 구제하는 대책이 난감하니 백성들의 삶이 측은합니다. 매년 근처에서 모시며 맛있는 음식으로 잘 모시고 싶으나 산이 높고 길이 험하여 사람이나 말이나 모두 힘이 다하여 지치니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.

사환(使喚)이 마침 관청의 일로 서울에 올라간다가에 황망한 가운데 급히 편지를 쓰느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죄 한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.

앞서 9~10월에는 검찰방으로 순찰사를 보좌하다가 관청에 돌아왔습니다. 얼마 후에 어르신께서 부인쇄환어사로 저희 도에 파견되신다고 들었는데 몹시 기다려집니다. 또 설을 원 후에 순찰하신다 하는데 그러한지요? 별도의 준비 사항은 이미 마쳐놓았습니다.

보내주신 편지에 감사드리며, 바라건대 평안하고 편안하기를 거듭 바랍니다. 더욱 삼가 존체 살피시기 바랍니다. 삼가 인사드리며 글을 올립니다.